



개 회 사

金 志 柱 (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

존경하는 吳明 체신부 장관님, 그리고 함께 자리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렇게 產·學·研·官을 대표하는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전산화에 관련된 국가적인 諸般課題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와 해결방안의 모색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이번 행사를 저희 협회와 함께 주관하여 주신 金聖鎭 한국전산원장님과 李龍兪 정보문화센터 회장님, 金宗相 한국정보과학회 회장님, 그리고 沈壽輔 한국통신학회 회장님을 대신해서 본인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마도 금년도는 우리나라 歷史에 영원히 잊지 못할 뜻 깊은 한 해로 기록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끈질겼던 북한의 방해를 극복하고 '88서울 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침으로써 세계 여러나라의 우려를 불식했음은 물론 규모면에서나 운영면에서 과거 어느 대회보다도 성대하고 훌륭했던 대회로 評價를 받았습니다.

50억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과 추억을 심어준 개·폐회식을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와 한국을 아시아권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시킨 경기성적은 우리 민족의 저력과 긍지를 한껏 과시하는 절호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GIONS와 WINS 전자통신시스템이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것은 括目할만한 성과라고 자부할만 하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보다 새롭고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즐기찬 도전과 끊임없는 전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길 새로운 미래는 정보문명시대라고 합니다. 또한 정보문화사회의 도래는 필연적인 것으로 단정됩니다. 새로운 미래사회의 건설은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정보문화의 확산이 핵심요소로써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이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000년대 고도정보화 사회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당면과제인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정보문화의 확산은 產·學·研의 相互 유기적인 협조와 정부의 국가적 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예컨대 오늘 다 함께 논의하게 될 세가지 커다란 주제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긴밀한 협조 관계와 범국가적 지원 노력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學界와 研究所는 科學技術의 源泉이며 新技術의 開發은 産業에 있어 活力素가 되고 發展의 指標가 됩니다. 그동안 학계와 연구소는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동향과 개발추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ISO, CCITT, JTC1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으로 자체적인 연구개발에 진력해 왔습니다. 또한 산업계의 국내외 시장 개척활동이나 기술 개발투자도 크게 증대되어 왔고 이 분야의 제도보완과 환경개선등 정부의 지원 노력도 점차 가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표준화의 결과는 생산성의 향상과 이용의 촉진을 통해 내수기반을 구축해 주고 수출을 증대시켜 업계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적 부의 축적과 차원의 효율적인

용은 물론 정보문화의 확산과 국민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고도정보화 사회로의 진전과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로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情報의 편재로 인한 소외계층을 발생케 한다거나 컴퓨터 문맹으로 인한 국가사회적 비능률을 초래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장애들을 미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민적 마인드확산을 위해 각별한 배려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함에 있어 부디 진지한 토론과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통해 훌륭한 대안이 마련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국회의 국정감사로 인해 분주다망하신 중에도 대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 격려하여 주시는 뜻 明 체신부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적극 후원하여 주신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데이터통신주식회사, 삼성데이터시스템주식회사, 주식회사 콤텍시스템, 매일경제신문사 임직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88. 10. 25



치 사

吳 明 (체신부장관)

존경 하는 한국전산원 김성진 원장님,
정보문화센터 이용태 회장님,
한국정보과학회 김종상 회장님과 한국
통신학회 심수보 회장님,
정보통신진흥협회 김지주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국가전산화정책과 정보문화확산을 주제로 하여 산업체, 학계, 연구소 등 각계 각층이 합동으로 이렇게 훌륭한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준비하느라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인류사회는 정보혁명의

물결속에서 기존사회구조의 질적인 전환과 함께 새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이 요구되는 정보화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정보화사회의 조기 구축과 정착을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보화사회의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공중전기통신사업자,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각계 각층이 합심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이제는 전화시설이 1,000만 회선을 넘어서서 1가구 1전화시대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기본통신수요의 충족을 가져 왔으며, 첨단서비스의 개발 보급과 전국 전화자동화 완성 등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통신기술진흥과 통신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세계